"일곱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만 '행복도 7배'"

일곱번째 아이 출산 장흥 박제정·김해숙씨 부부

'3남4녀' 다양한 에피소드에 매일 '웃음꽃' "심심할 틈 없어요" 다자녀 가정 확실한 지원 필요…군. 9598만원 분할 지원키로

"일곱 명까지 낳을 줄 알았다면 '빨주노초파남보' 로 이름 지을 걸 그랬어요."

20일 전 일곱째 솜이를 맞이한 박제정 (45·장흥군 장흥읍)·김해숙 (40)씨 부부. '힘든 만큼 행복도 7 배'라는 두 사람은 일곱남매와 아름다운 일상을 채 워가고 있다.

아버지 박제정 씨는 "아이들이 아픈 곳 없이 건강 해 부모로서 감사하다"며 "넉넉지 않은 가계 상황에 늘 아이들에게 못 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7남매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박 씨는 늘 따 뜻한 가족의 정이 그리웠다.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 기쁨을 누리다 보니 어느새 7남매 가정이 이뤄졌다.

7남때는 큰아들 대선(20)씨를 시작으로, 현선 (18)군, 현지(17)양, 지연(10)양, 다온(9)군, 봄 (2)양, 솜(0)양 순서다.

"아이들 수가 많다보니 이름이 헷갈릴 때가 많아 요. 그래서 번호로 부르는 것도 나름 효율적이에요. 간단히 '1번', '2번' 이렇게요." 가족 구성원이 많은 만큼,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특히 지난달까지 막내였던 '6번' 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습관처럼 사고를 친다. 태블릿 PC를 던 져 고장 내고 고양이 간식을 본인 입에 넣는 데다 볼

일 다 봤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기저귀 속에 손을

넣어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요즘 그놈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삶이 스펙타클해요. 다행히 '3번' 현지가 엄마처럼 봄이 를 돌봐주고 있어요. 다른 집이었다면 떼쓸 나이인 데 아래로 넷이고 위로 무뚝뚝한 오빠들이라 보호 자 역할을 자처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픕

아내 김해숙 씨 역시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다. 막내를 낳기 직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한 김 씨는 당장 어린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출산 후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솜이를 품은 상태에서도 막달까지 일했던 사람"이라며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라 힘들어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이 존경

스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흥군은 3남 4녀의 다자녀 가 정을 이룬 박 씨 부부에게 12개 사업에 걸쳐 959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씨는 다자녀 부모로서 느끼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다자녀 가정의 지원책을 거론하지만, 실제 출산과 양육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인구감소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병원비나 육아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수년 동안 쪼개 지급하는 정책은 당장 오늘내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숨통이 트이지 않는 구조거든요."

박 씨에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양육 철학이나 멋진 포부는 없다. 그는 "당장 아이들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이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7남매를 키우는 고단한 현실에도 박 씨의 목소리 에는 웃음이 배어나왔다. "복잡하고 힘든 순간도 많



큰아들 대선〈가운데〉씨 등 박제정·김해숙씨 부부의 5남매.



한국신문윤리위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주최한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가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세미나는 언론 윤리를 제고하고 언론의 신 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간 간행물의 자율 심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윤 리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 서 현행 일간신문 중심의 자율심의 제도를 전국·지역 주간신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 광고윤리강령'에 근거해 온·오프라인 신문을 심의 하고 언론이 윤리 교육 활동을 하며 언론이 올바른 저널리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사방비우저 지원공 금이천만원 ₩ 20,000,000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사랑바우처' 과학 체험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님)의 후원으로 광주지역 아 동 2000명에게 과학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지난 23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최강님 단 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지역 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2025 과학사랑바우처'사 업을 통해 지원금 2000만 원과 과학사랑바우처 교 환권 2000장을 전달했다.

과학사랑바우처는 트리플패스(본관·어린이과학 관·인공지능관 관람권)와 특수영상관(4D영상관, 다이나믹라이더, 스페이스360, 천체투영관) 관람 권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아다. 게 자라주길 바랄 지만, 아이들이 있어 집안이 늘 활기로 가득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다둥이 가족의 행복이란 게 이런 거 겠죠?" 고 힘든 순간도 많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호남대 랄랄라스쿨, 완도 방과후학교 '댄싱스쿨'



광주 삼도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광주 삼도농협(조합장 임문채)은 23일 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및 대학교 신입생 자녀 7명에게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EUITIO

호남대 랄랄라스쿨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완도 화흥초등학교, 군외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완도 지역 방과후학교 특화프로그램 '댄싱스쿨'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오늘의 날씨

해뜸	05:48	달뜸	04:0
해짐	19:13	달짐	16:
해심	19.13	달심	163

일교차 크다

꽃가루와 강한 바람 주의.

광주	맑음	8/20	보성	맑음	7/19
목포	맑음	10/16	순천	맑음	8/20
여수	맑음	10/19	영광	맑음	7/17
나주	맑음	7/19	진도	맑음	9/17
완도	맑음	10/20	전주	맑음	7/19
구례	맑음	7/20	군산	맑음	7/17
강진	맑음	8/19	남원	맑음	6/19
해남	맑음	8/18	흑산도	맑음	9/16
장성	맑음	7/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선	오후
		파고(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북)	1.0~2.0	0.5~1.5
	먼바다(남)	1.0~2.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서)	1.5~2.5	0.5~1.5
	먼바다(동)	1.0~2.0	0.5~1.5

♦물때

	간조	만조
모ㅠ	05:16	12:10
목포	17:46	-:-
어스	00:48	07:19
여수	13:23	19:37

◇ 생활지수

의세먼지

◇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Diamond	\triangle	\Diamond	
	7/23	10/22	12/19	
	29(하)	30(수)	5/1(목)	

보통

29(화) 30(수) 5/1(목) 数 0 0 8/22 12/25 12/2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5 FAX 062-222-4918

화촉

▲김용기·김명옥씨 차남 성록군, 김연중·이시형 씨 딸 민경양=26일(토) 오후 2시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위더스웨딩홀 3층 펠리체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 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 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 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 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 -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 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 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 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 (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 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 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 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 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 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 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약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

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 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 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 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

▲학교법인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박규환) 제27회 유은동문 한마음 대축제=26일(토) 오전 10시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여상고 잔디운동장. 062-361-2680